





조계종은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측에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사진왼쪽부터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 스님과 자문위원 우봉 스님이 국민의힘(5월 19일) · 더불어민주당 · 개혁신당(5월 20일) 선거캠프에 자료집을 전달하는 모습.

조계종, 정책 홍보 '잰걸음'…후보에 제안서 전달

기획실장 법오 스님 등 대표
5월 19일 국민의힘 캠프 방문
20일 민주당, 개혁신당에 전달
전통보존 · 정신건강 증진 제안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국민행복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전달식은 불교문화 계승·발전과 전통문화유산보존, 국민 마음건강 증진,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으로 4개 분야 18개 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도 제도 개선 △전통문화유산의 면단위 보존관리 △불교문화유산의 형평있는 예산 반영 △연등회 전승관 건립 △명상 대중화와 정신건강 교육 도입 △불교문화교류 확대 등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적 안정을 뒷받침할 실질적 내용들로 구성됐다.

각 정당들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은 5월 19일 기획실장 법오 스님, 정책기획단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우봉 스님을 대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 불교계 현안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조계종 측은 불교계 공약을 넘어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임을 강조했다. 법오 스님은 "정책 자료집은 불교계 정책 공약보다는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봉 스님은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 요청이 아닌 국민행복을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전통사찰 보존지 문제 등 불교계의 숙원사업을 김문수 후보가 공약화했으면 좋겠다"는 조계종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5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 불교본부장 김병주·김영배·김준혁 의원을 만나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발표한 '불교문화 공약'에서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 개선과 복합유산에 맞는 관리체계 수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의 전승관 걸비 △템플스테이 및 명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장 김병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계종과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불교문화 정책을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불교 문화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은 개혁신당 캠프를 방문해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법오 스님은 "면밀한 검토로 대선 정책에 반영,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법불교 정신을 강조한 이주영 의장은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용맹한 기상을 보여줬고, 국민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종교"라며 "지금처럼 국내외가 혼란한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태고종 찾은 설난영-비구니회 방문 김혜경 '대선 내조'

설난영 여사, 상진 스님 예방
경기도에 '종무과' 신설 어필
김혜경 여사, 비구니회 방문
교구본사주지협 회의서 인사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설난영 여사의 불심(佛心) 잡기 '대선 내조' 경쟁이 치열하다.

설난영 여사는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을 방문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전승관에 도착한 설 여사는 먼저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전을 참배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총무원장 접견실로 이동해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설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종무과'를 신설하고 경기 지역 사찰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며 "전국에 산재한 전통사찰과 그 안의 문화유산들은 귀중한 전통문화이며,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불교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김 후보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설난영 여사는 5월 20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김혜경 여사가 5월 5일 태고종 봉축법요식서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전통 종단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단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며 후보님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설 여사는 이날 삼천사 은영노인복지관과 진관사를 잇달아 방문해 불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 사찰들을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실천 중이다.

김 여사는 5월 19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를 찾아 비공개로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지난 5월 12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설난영 여사와 함께 참석한데 이어, 5월 15일에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3차 회의가 열리는 불국사를 찾아 주지 종천 스님을 예방하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인사했다. 16~18일에는 호남 지역에 머물며 불교 등 종교계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에는 상진 스님의 주석처인 양주 청련사를 찾아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5월 7일에는 신흥사 등 강원 지역 불교계를 비공개 방문해 내조를 이어갔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불자 110명 봉은사서 합동 수계

수도권 20여 개 대학 동참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수계법회를 통해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는 5월 1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11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경희대·덕성여대·서강대·서울교육대·서울대·서울여자간호대·성균관대·성신여대·숙명여대·숭실대·신한대·이화여대·인하대·한양대·홍익대 등 수도권지역 20여 개 대학에서 1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대불련 지도법사)과 효석 스님(이화여대), 덕경 스님(숙명여대), 범준 스님(서울여자간호대), 수인 스님(한양대), 연기 스님(경희대), 탄현 스님(서울교육대) 등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동참해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은 "봉은사는 1963년 대불련이 창립 발원을 세운 곳"이라며 "대불련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계법회를 열게 돼 뜻깊다"고 인사했다. 유 회장은 이어 "수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의 등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불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 자비와 지혜의 길로 이어져 우리 청년 불자들이 세상을 밝히는 마중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계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참석한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 동체대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수계를 지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이 사회까지 평화롭게 만든다. 오늘 받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늘 마음 깊이 새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은 대학생들은 "진정한 불자로 계를 지켜나가겠다"고 서원했고,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소원현 서울대 법우가 대표로 수계첩을 받았다. 특히 대학생들의 법명은 각 학교 지도법사 스님이 직접 지어줘 수계에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